

R-20. 임상치관연장술후의 전치부 치은퇴축에 대한 전향적 연구

김선혜*,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심미적으로 중요한 상악 전치부에 다양한 이유로 임상치관연장술이 요구될 수 있고, 이후 보철물 장착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치은 퇴축은 술자, 환자 모두에게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치관연장술을 시행한 상악전치부에 보철물 장착후 0, 3, 6, 9, 12 개월 후의 치은 변화와 최종 치은 퇴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원 치주과로 내원한 14명의 환자에 해당하는 29개의 치아에 협측 판막을 거상하고 Iwanson gauge 로 상대적인 협측 판막 두께(평균 0.34 ± 0.08 mm)를 측정한 후 임상치관확장술(필요시 골삭제술 동반)을 시행하고, 일정기간의 치유기간(평균 108.07 ± 53.07 일)을 거친후 장착된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도재가 닿는 경우(P type, n=11)와 도재가 아닌 금속이 닿는 경우(M type, n=18)로 나누었다. 보철물 종류에 따른 0, 3, 6, 9, 12 개월후의 탐침치주낭심도(PPD), 탐침부착수준(PAL), 치은퇴축(R), 치태지수(PI), 치은지수(GI)의 차이와, 보철물 종류(P/M), 치아위치, 치유기간, 그리고 협측 판막 두께가 최종 치은 퇴축에 미치는 영향을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해서 평가하였다.

보철물 종류에 따른 0, 3, 6, 9, 12 개월 후의 치은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탐침치주낭심도(PPD)는 별 차이가 없었고, 탐침부착수준(PAL)은 6개월에서 M type이 P type보다 유의성있게 컸다($p < 0.05$). R은 6개월에서 M type이 P type보다 유의성있게 컸고($p < 0.05$), M type은 치은변연의 지속적인 치근단 이동이 보이는 반면, P type은 치관쪽 이동을 보였다. PI는 0개월에서 M type이 P type보다 유의성있게 컸고($p < 0.05$), GI는 6, 12개월에서 P type이 M type보다 유의성있게 컸다($p < 0.05$).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 최종치은퇴축은 M type(평균 0.31 ± 0.55 mm)과 P type(평균 -0.14 ± 0.60 mm) 간에 유의성있게 차이가 없었다. 협측 판막 두께와 최종치은퇴축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유기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아위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상악전치부에서 임상치관연장술후 충분한 치유기간을 거친후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치아삭제와 치주조직의 Biotype을 고려한 정확한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이 환자, 술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